

돈(銀)과 유곽문화*

- 『게이세 이로자미센(けいせい色三味線)』의 경우-

고영란**

(e-mail : youngrankoh@hanmail.net)

< 목 차 >

- | | |
|--------------------|---------------------|
| 1. 들어가기 | 4. 조년모노(町人物)의 인물 묘사 |
| 2. 상업으로서의 유곽놀이 | 5. 나가기 |
| 3. 축재(蓄財)에 배치되는 유곽 | |

キーワード：銀(money), 遊廓(red-light districts), 商人(merchant), 江島其磧(Ezima Kiseki),
けいせい色三味線(Keisei Irozyamisen)

1. 들어가기

에지마 기세키(江島其磧:1666-1735, 이하 기세키)의 첫 우키요조시(浮世草子)인 『게이세 이로자미센(けいせい色三味線, 이하 이로자미센)』(1701)¹⁾은 유곽

* 이 논문 또는 저서는 2007년 정부(교육과학기술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RF-2007-361-AL0013).

**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 HK연구교수, 일본문학.

1) 長谷川強(1991)『浮世草子の研究』桜楓社, pp.83-85. (『게이세 이로자미센』은 요코본 5권 5책으로 겐로쿠 14년 8월에 간행되었고, 하치몬지야판이다. 서문에 서명은 없는데 에지마 기세키의 우키요조시 처녀작이다. 전 5권을 교토, 에도, 오사카, 도시, 시골로 나누어 교토의 시마바라, 에도의 요시와라, 오사카의 신마치, 슈모쿠초, 시바야마치 등의 지방 도시의 유곽과 무로, 마루야마의 시골의 유곽의 여러 유흥이 양상을 다루고, 각 권 두에는 이들 유곽의 유년의 자세한 신상을 적는다. (중략) 여기에 ‘호색본’이라고 한다. 당시의 호색물이 유행한 출판계에 일석을 투하하고자 기획한 것이다.) 「けいせい色三味線」は横本五卷五册、元禄十四年八月刊、八文字屋板である。序文に署名はないが江島其磧の浮世草子の処女作である。5卷を京・江戸・大坂・鄙・湊之卷に分ち、島原(京)・吉原(江戸)・新町(大坂)・撞木町・柴屋町などの地方の廓(鄙)・室・丸山など湊町の廓(湊)の遊興の種々相を扱ひ、各卷巻頭にはそれらの廓の女郎の詳しい名寄を掲げている。(中略)ここに「好色本」といふ。当時の好色物流行の出版界に一石を投じよと企てたのである。」이하, 번역문은 인용자에 의함.

의 세계를 다룬 일련의 샤미센모노(三味線物) 중 첫 작품이다.²⁾ 『이로자미센』을 비롯한 기세키의 작품이 기본적으로는 이하라 사이카쿠(井原西鶴 (1642-1693) 이하 사이카쿠)의 그것을 모방, 답습하였음은 널리 알려져 있으나,³⁾ 본 연구는 『이로자미센』의 기술적 양태나 전거와의 영향관계를 넘어 그 내용에 주목하고자 한다. 줄고에서 밝힌 바와 같이 『이로자미센』은 게이세가이의 혼(傾城買の心玉)에게 빙의당하여 유녀에게 매혹되는 여러 남성의 이야기가 전개된다.⁴⁾ 이와 같은 본 작품에 대해 하세가와 쓰요시(長谷川強) 씨는 유곽의 세계를 묘사하거나 정보를 제공하는 일종의 호색물(好色物), 혹은 평판기(評判記)로서 평가하고, 나아가 사이카쿠의 작품에 비해 인간 심리 묘사가

- 2) 堀江善郎「八文字屋本に於ける三味線物について」(倉貞正江・佐伯孝弘編・解説(2010)『浮世草子研究資料叢書』第五巻, クレス出版, p.244.) (순수한 의미에서 하치몬지야본으로서, 적어도 기세키작의 소설이 처음으로 출판된 것은 겐로쿠 14년으로, 그 작품은 게이세 이로자미센이었다. 그 후 여러 작품이 출판되었는데, 샤미센이라고 하는 이름이 붙은 것이 여러 종류 있다. 즉 게이세 이로자미센(겐로쿠 14년), 후류교쿠자미센(간에 2년), 게이세 토모자미센(교호 17년), 게이세 토모자미센(교호 18년)이 그것이다. 이들 작품은 꽤 출판 시기의 차이가 있고, 또한 구성상으로부터 보아도 많은 변화가 보인다. (중략) 여하튼 게이세 이로자미센이 안내서와 소설의 혼혈아라는 것이고, 소설 부분은 각 권마다 각기 교토, 오사카, 에도와 그 외의 유녀에 관한 에피소드와 같은 것을 모은 것이다.) 「純粋な意味での八文字屋本として、少くも其磧作の小説が、はじめて出版されたのは、元禄14年で、その作品は傾城色三味線だった。その後、種々の作品が出されたが、三味線といふ名を持ったものが幾種かある。即ち、傾城色三味線(元禄十四年)、風流曲三味線(寛永二年)、傾城友三味線(享保十七年)、傾城友三味線(同十八年)である。これ等はかなり年代の開きがあり、又構成上から云っても、多きな変化が見られる。(中略)兎も角、傾城色三味線が、細見と小説の混血児で、小説の部分は各巻とも夫々、京、大阪、江戸其他の遊女に関するエピソードの如きものをあつめてあった。」
- 3) 前掲書, 『浮世草子研究資料叢書』 p.548. (花谷登美乃「西鶴と其磧—西鶴好色物と其磧三味線物を中心に—」.) (대개는 사이카쿠의 문장의 하이카이적인 어려움을 완화시키고자 해서 설명적인 어투가 되던지, 삽화적으로 부가하던지의 둘 중에 한가지 방법을 택한다. 물론 그렇게 하더라도 부자연스러움을 느끼지 않게 하는 것은 사이카쿠의 문장 구조가 비약적이기에 중간에 치고 들어가기 쉬운 부분이 있어서일 테지만, 기세키가 그 점을 잘 알고 보완하며 자신의 문장을 만들어 갈 수 있었던 것은, 사이카쿠의 문장에 대한 그의 깊은 정도와 훌륭한 문장 덕분에 가능했을 것이다.) 「大ていは、西鶴の文章の俳諧的な難解さを緩和しようとして説明的になるか、挿和的な附加をするか、の何れかである。もっともそのようにしても、不自然さを感じさせぬのは、西鶴の文章の構造が飛躍的で、割り込みやすいせいもあったろうが、其磧が、そこを見抜いて補綴して自分の文章とすることが出来たのは、西鶴の文章に対する彼の深い傾倒と彼の文章の巧さによるところであったろう。」
- 4) 줄고(2010) 「『곤단 이로아소비 후토코로 오토코(魂胆色遊懐男)』에 관한 일고찰」 『일본사상』 19호, 일본사상사학회, p.200. 「그런데 이처럼 멀리 중국의 일화를 들지 않아도 『후토코로오토코』 보다 앞선 기세키 스스로의 작품 중에 남녀 간의 정사 및 은신, 더불어 빙의를 모티브로 한 작품이 있다. 기세키의 우키요조시 데뷔작이라고 할수 있는 『게이세이 이로자미센』이 바로 그것이다.」

빈약하다는 점을 지적한 바 있다⁵⁾. 그 의견에는 동의하면서도 한편으로 『이로자미센』이 유곽놀이와 떼려야 뗄 수 없는 돈(銀)과 유곽과의 연관성을 반복적으로 언급하고 묘사한다는 사실에 본 연구는 주목하고자 한다. ‘돈과 유곽’에 관한 반복되는 묘사는 작가 기세키가 훗날 묘사하게 되는 조닌모노(町人物) 속에서도 확인되기 때문이다. 환언하자면 ‘돈과 유곽’에 관한 반복되는 묘사에 유의하여 『이로자미센』을 살펴볼 때, 왜 작가 기세키가 『이로자미센』 이후에 조닌모노를 지속적으로 묘사하는지 심층적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다음에서는 『이로자미센』에서 묘사되는 ‘돈과 유곽’ 묘사에 초점을 맞추어 분석하고자 한다.

2. 상업으로서의 유곽놀이

『이로자미센』의 1권 3장에서 유곽은 돈으로써 무엇이든 가능한 곳이라는 사실이 강조된다.

(모든 사람의) 오체는 모두 같지만 사람만큼 서로 다른 것이 없다. 전생애 좋은 씨앗을 뿌렸던 것이리라. 예컨대 유곽에 드나드는 사람 중에는 가마에

5) 『浮世草子の研究』 pp.113-115. (이상 사이카쿠에 비하면 인간의 타성, 유녀의 근성 등을 그리기 보다는 기발한 부분, 진기한 취향을 제일로 생각했던 것으로 이해된다. 그러므로 글의 음영이나 여운도 문제가 되지 않고, 심각함은 회피되고 있는 것이다. 이 부분을 중시한다고 하는 것은 인물의 성격이나 심리를 관통한다고 하는 측면에서 『게이세 이로자미센』의 경우 불일치하고 부자연스러운 부분이 보인다. (중략) 그리하여 줄거리 중시, 취향 중시라고 하는 경향은 본질적으로는 우키요조시의 발전이라고 하는 것은 아닐지는 모르지만, 호색물의 타성을 타파하기 위해 잇푸와는 다른 방법을 호색물 자체 속에서 행하고 그 분해, 붕괴를 막는 것에서는 유효했다는 점을 인정해야만 할 것이다. 또한 내용의 심화라고 하는 점에서는 마이너스였던 줄거리 중시, 즉 구성에 대한 배려라고 하는 기법의 측면에서 진보했다고 봐야 하고, 그러므로 우키요조시에 크게 영향을 준 것이다.) 「以上西鶴に比べると人間の惰性、遊女の根性などを描くよりは、奇抜な筋、珍奇な趣向が第一に考へられている事が知れる。従って蔭翳も余韻も問題でなく、深刻さは避けられているのである。この筋の重視といふことは、人物の性格や心理の一貫といふ点については「色三味線」の場合不整・不自然がみえるが、(中略)さして筋本位、趣向本位といふ行き方は本質的には浮世草子の発展といふ事ではないかも知れぬが、好色物のマンネリズム打破を一風とは別に好色物自体の中で行ひ、その分解・崩壊を防ぐのに有効であった事は認めなければならぬであらう。又内容の深化といふ点ではマイナスではあったが筋本意、即ち構成への配慮といふ事は技法の面では進歩とみるべきであり、以後の浮世草子に大きい影響を与へたのであった。」

타는 이가 있는가하면, 가마를 들고 끄는 이가 있다. 금은도 죽은 후엔 기왓장 처럼 쓸모없지만, 목숨이 붙어있는 사이에는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다. 특별히 유곽은 돈이면 더 무엇이든 다 되는데.

五体は違なくて、人程替れる物なし。前生にてよき種蒔置けるにぞ、たとへば忍び駕籠の
 のる人のあるに、まはす人あり。金銀も死すれば瓦石のごとくなるが、生あるうちは、是にま
 される重宝なし。ことさら色里は銀子にてはのきく事⁶⁾、

이처럼 돈으로 움직이는 유곽이기에 유곽놀이는 근본적으로 돈 없이는 불가하다는 사실이 아래 2권 1장의 일화에서 골계적으로 묘사되고 있다.

"어리석으시오. 당신이 저를 연모하여 이 신사에 와서 기도를 하신다는 사실을 어느 날 밤 이나리 다이묘진이 꿈에 나타나 신명스럽게도 말씀하셨습니다. '돈도 없이 다유를 공짜로 얻고 싶다고 하는 말도 안 되는 기도이지만, 무리인 줄 알면서도 신의 역할이 기도를 들어주는 것이니 이를 이루게 하지 않을 수 없다. 너는 어서 그 남자를 만나 하룻밤의 만남을 이루어주라.'라고 하셨습니다. 이에 저를 낙적인 남성에게 꿈 이야기를 하니, '사랑은 상대방이 필요한 일이니 정을 주어라.'라고 잠시 시간을 주셨습니다." (중략) "오늘 하루는 당신에게 말기는 이 몸. 어찌되든 당신 마음대로입니다."라고 기대니, 너무 기쁘기는 하나 이상하게 여기며 "이는 이야기가 너무 잘 흘러가는데, 혹시 낮에 나온다는 여우에게 흘린 것은 아닐까?"라고, (중략) 여하튼 신불의 힘도 돈으로 하는 일에는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

「おろかや御身我事を恋にして此社に歩みをはこびいのらるよし、ある夜の夢に稲荷大明神枕にたたせ給ひ、あらたにつげてのたまはく、『ぜにもたずに太夫をただといふ、不祥ながら願ひ事、無理とはしれてありがなら、神の役なれば、是もかなへてやらねばならず。汝急かの男にま見へ、一夜契りをこめてとらせよ』との御事。則ぬしさまに、夢物語をいたしぬれば、『恋は互なれば情をかけてやれ』とすこしの御いとま、(中略)『今日一日はそなたさまにまかす此身、どふ成共御心次第』とよりかかれれば、うれし過ぎて不思議に思ひ『これあんまりうますぎたる事、もしや昼狐にばかされはせぬか』と、(中略)とかく仏神の力にも、銀づくの事はかなはぬと見へたり。」 (2권1장, 텍스트 pp.87-88.)

6) 長谷川強校注 (1989) 『新日本古典文学大系 けいせい色三味線、けいせい伝授紙子、世間娘気質』岩波書店, p.37. 이하 텍스트로 삼는다.

유녀(遊女) 다카오(高尾)에게 빠진 가난한 환전소의 스케시로(助四郎)는 화대가 비싼 다카오의 손님이 될 수 없음을 절망하지만 신사에 가서 사랑을 이루게 해달라고 기도를 드린다. 아니나 다를까 이나리 다이묘진(稻荷大明神)이 스케시로의 기도를 들어줬다며 다카오가 밀회하러 온다. 너무 이상적인 일이라고 생각하여 스케시로가 반야심경을 읊자, 다카오는 정체를 밝히고 도망간다. 다카오는 다름 아닌 스케시로를 홀리려는 여우였던 것이다. 위에서 언급되듯 “신불의 힘도 돈으로 하는 일에는 미치지 못하는 것”이다. 이렇듯 돈 없이는 불가한 유곽놀이는, 역설적으로 어떻게 해서든 손님인 다이진(大臣)의 돈을 얻어 내려는 다이코모치(太鼓持ち) 및 유녀의 모습을 통해 그 상업적 성격이 부각되는데, 이를 아래에서 살펴보자.

지금부터는 우리들의 업도 매우 걱정된다. 지금까지와 같이 손가락 벌리면서 “이 보십시오, 서방님.”이란 말만하며 술 상대를 한다든지 농담만 해서는 결코 (서방님들이) 유곽에 동행하지 않을 것이다.

是からは我々が商売とても心もとなし。今までの調子に、あちな手付して、「是旦那」斗いふて、盃の間したり、軽口いふ分では、よもやつれまじ。(1권 5장, 텍스트 p.60.)

유곽에서 다유는 근본적으로 돈으로 살 수 있는 것이라는 인식으로,
此里に太夫をおきては、根が売物といふ心にて、 (2권 2장, 텍스트 p.95.)

유곽이란 상업은 일 년 내내 엄청 많은 돈을 버는 것처럼 생각되지만 특별히 (만나면) 손해 보는 손님도 있다.

色里の商売、年中抓取もあるやうに思へど格別あはぬ客あり。(3권 5장, 텍스트 p.164.)

본 작품은 하세가와 씨의 연구에 따르면, 호색물인 작품이기에 유녀에 대한 평판이나 유곽놀이의 방법이 서술되어야 한다. 그런데 1권 5장에서 다이코모치는 지금까지의 상술로써는 다이진으로부터 돈을 얻어낼 수 없는 어려움을 호소하고, 2권2장에서 유녀는 돈으로 매매할 수 있음이 확인되며, 3권 5장에서 유녀에게는 수지가 맞지 않는 손님도 있음을 언급한다. 이처럼 유곽은 남녀 간의 진심보다는 돈을 매개로 남녀의 이해관계가 부딪히는 곳이라는 사실이 작중에는 의도적으로 거듭 묘사되고 있는 것이다. 심지어 유녀가 진심 없이 손님

에게 서약서를 쓰는 것이나 상인이 이득 없이 장사를 한다고 하는 말이나 모두 큰 차이 없는 생계를 위한 거짓이라는 언설을 통해,⁷⁾ 유곽에서의 일련의 행위는 궁극적으로 상업임을 굳이 묘사한 것 또한 『이로자미센』을 이해하는 한 축이라고 할 수 있다. 이렇듯 돈 없이는 할 수 없는 유곽놀이인 줄 알면서도 이에 빠지는 남성들, 정확하게는 상인 남성들의 모습을 다음에서 구체적으로 확인해보자.

3. 축재(蓄財)에 배치되는 유곽

『이로자미센』에서는 상업에 열정을 바치면서도 유곽놀이를 멋지게 하지 못해 아쉬움을 남기는 남성들이 묘사된다.

그것 참 아쉽구나. 이렇듯 짧은 목숨이라는 것을 알았더라면 5천량 있을 때에 확 써버리고 말 것을, 도움도 되지 않는 돈을 저축하여 장례식에 돈을 써버린 것이야말로 돌이킬 수도 없는 일이다.

さりとは悔しや。是ほど短き命とすれば、五千兩の時、くわとつつかふて仕舞べきに、無益の金をためて仏くさい弔事に捨てのけんこそ、かへすがへすもかなしけれ。

(3권 4장, 텍스트 p.161.)

밑줄 친 바와 같이 유곽놀이에 쓰이지도 못할 "도움도 되지 않는 돈"을 번신스케(新助)가 바로 3권 4장의 주인공이다. 그는 돈만 벌다가 유곽놀이도 하지 못한 채 죽은 불행한 사람으로서 설정된다. 젊은 날 우연히 주운 편지 덕분에 5천량을, 나아가 유곽놀이를 위해서 1만량을 벌었으나 결국 병이 들어 유곽놀이를 하지 못한 것이다. 이에 본인 대신 유곽놀이를 해 줄 양자를 찾다가 방탕한 생활 때문에 탕진한 가미코(紙子) 다이진에게 1만량을 상속하고 세상을 떠난다. 그런데 이 가미코 다이진이 유곽에서 유녀를 낙적하고자 하자, 신스케는 아래와 같이 등장하여 웃음을 자아낸다.

7) 텍스트 3권 3장, p.148. 「商人の高利を取りながら「元値でござります」と、沢山そふに誓文をたつる。傾城の誠なき心から、起請書で、客をたらしも、品こそかはれそれぞれの身過。女郎にかぎりて偽りいふやうに、悪口いへるは無理そふ也。」

이 세상을 떠난 신스케의 목소리가 천장에서 들리는데, "저 유녀를 낙적할 필요가 없다, 없어. (중략) 정부 시노니에게 도망가려는 것도 모르고 속아 넘어간 멍청한 놈. 저 정도로 여자에게 속아 넘어 갈 줄은 모르고 양자로 삼은 것이 억울하다, 억울해."라고 모습은 보이지 않고 목소리만 들리다가 사라졌다. (중략) 일동은 깜짝 놀라 하늘을 쳐다보니 유녀는 얼굴을 붉히면서 "요즘 세상에 이런 장난을 치는 유령이 다 있네."라고 천장을 노여운 듯 올려다보는 것도 이해가 간다, 가.

此世をさりし新助が声、天井に音して、「あの女郎請出す事無用無用。(中略) 間夫の四の二が方へ立のかんとのたくみをしらず、鼻毛をよまれたわけもの。それほどのおっそりとはしらいで、養子にせし事黄泉のさはり、くやしくやし。」と姿は見へず、声ばかりしてうせにけり。(中略)一座の者肝つぶし、あきれてそれを見れば、女郎は赤面しながら、「近頃悪功は幽霊じゃ」と、天井をうらめしげに、見あげられしは断断。

(3권 4장, 텍스트, p.163.)

신스케는 유령으로 등장하여 양자가 낙적하고자 한 유녀는 다른 남자의 아이를 임신한 여인이니 멍청한 사람을 양자로 삼았다며 한탄한다. 자신의 대리인을 통해서, 나아가 유령이 되어서라도 유곽놀이란 욕망을 달성하여 대리만족하고 싶었던 남성의 욕망을 골계적으로 묘사한 위의 일화는 『이로자미센』의 마지막 장인 5권4장에서 묘사되는 모순적인 현실과 상통하는 바가 있다.

"미녀가 많은 교토에 살면서 밤낮으로 상업에 묶여서 꽃처럼 아름다운 유녀가 너무 많아 질린다고 하는 히가시야마로 유녀 구경하러 가지도 않고, 평생 주판을 베게 삼아 잘 때나 일어나 있을 때나 검약의 두 글자를 잊지 않고, 즐거운 일도 모르며 계속 돈을 벌고도 점차 가난해지는 일, 이것만큼은 이해가 가지 않는다. 꽃과 같이 화려한 교토도 돈이 없어서는 즐겁지가 않다. 그러니 나니와에 와서는 죽을 때까지 돈을 벌어볼 테다."라고,

「美君おほき都に住みながら、明暮渡世の営みにくられて、花に見飽東山の女狩にも行かず、一生算盤枕にして、寝ても起きても、始末の二字をわすれず、よい事しらずにかせぎ通して、次第に貧なる事、是ばかりは不審はれず。花の都も金銀なくてはおかしからず。よしや難波に足をとめて、死ぬる迄かせぎ見るべし」と、

(5권 4장, 텍스트 p.239.)

위에서 돈을 버는 것은 유곽놀이를 위해서라고 하는데, 환언하자면 상인의 상업은 유곽놀이라는 욕망을 위함이라는 것이다. 한편으로 유곽놀이에서 탕진하는 돈만큼 무서운 것도 없으니,⁸⁾ 셈에 능하고 검약하는 등 가업에 힘써 유곽놀이를 경계해야 한다며 『이로자미센』은 마무리된다.⁹⁾ 그런데 『이로자미센』에서 게이세가이의 혼에 병의되어 탕진한 다수의 남성들이 셈에 능하지 못하고 검약하지 않아서 몰락한 것은 아니다. 그들은 부모로부터 상속받거나 자수성가했지만 뿌리칠 수 없는 유곽의 세계에 빠졌고, 이에 대담하게 돈을 뿌리면서 탕진하고 말았던 것이다. 축재와 배치되는 유곽 놀이의 성격을 명시하는 게이세가이의 혼의 고백을 다음에서 확인해보자.

유녀에 빠지는 자는 계산을 잘 해서는 유곽놀이에 검약하게 되어 즐겁지가 않다. 실은 나는 인간이 아니지만 또한 인간으로부터 멀지도 않은 게이세가이라고 하는 칠칠치 못한 덩어리이다.

傾城狂ひする者は、算用知ては、遊びに始末出しておかしからず。誠は我人間の種に、あらずして、又人間にとをからぬ物、傾城買といふ、やくたいなしの塊なり。

(5권 4장, 텍스트p.245.)

셈을 알고 검약해서는 재미를 볼 수 없는 것이 바로 유곽놀이의 성격이므로 『이로자미센』에서 묘사되는 유곽의 세계는 결국 축재와는 배치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유곽에 대한 동일한 인식은 3권 3장에서도 “여하튼 상업은 인내심 있게, 유곽놀이는 한번 시원하게 하는 것이 좋다. 저당 잡혀 돈을 쓰는 것보다는 처음부터 가산을 다 팔고 큰 손님인 다이진인 척 하는 것이 지혜로운 일이다.”¹⁰⁾라는 서술에서도 확인된다. 이처럼 축재와는 배치되는 유곽을 왜 당대의 조년들은 욕망의 기제로서 향유할 수밖에 없었는가? 하세가와 씨가 “무릇 제4 계급인 조년들은 무대 정면에서 인내하고 그 쌓인 울분을 무대 뒤에서 풀 수밖에 없었다.”¹¹⁾라고 지적하듯, 당대 상인은 돈으로써 삶의 욕망을 표

8) 2권3장, p.96. 「『世の中に無分別者と、銀の利ほどこはきものなし。』と、朝比奈の三郎が悪所銀の利におはれて、物前にはてんと、舞鶴の直垂も汗にしほたれ、」

9) 5권4장, 텍스트 p.245. 「抑々此傾城買は、「胎卵濕化の四生の外に、色塊といふ一生よりわき出る」と、取揚婆の申侍りき。此生に取つかれぬ様の大事は、第一家業に情を出し、算盤にうとからず、秤目せせりて、始末をわきまへ、衣裳好をやめて、大酒をせねば、永代傾城買に取つかる事なく、子々孫々迄繁盛し、永家伝り、大福長者となる事、疑ひあるべからず。」

10) 텍스트 p.154. 「とかく商売は心ながふ、遊女狂ひは、急に、くはつとしたがよし。家質置てつかふよりは、頭から売ての大臣めくは知恵なり。」

출할 수밖에 없었고, 그 대표적인 기제로서 유곽은 작동한 것이다. 역설적으로 상인에게 가장 중요한 돈을 탕진해 버린다면, 그들은 종종 기를 쓰고 경제적으로 재기한다는 사실이 다음과 같이 묘사된다.

여러 가지 생각을 해봤지만, 여하튼 파산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할 때 겐은 지혜를 내어,(중략) 교토의 데다이들이 마음을 합쳐 꽤 많은 돈을 내고 에도로부터 교토로 돌아와 빌린 돈을 남김없이 모두 변제하여 다시 한 번 부귀 영화를 누리게 된다. (이후) 시마바라에서 부는 바람은 생선가게에서 부는 바람만큼이나 무서워하고, 다이코모치를 보면 천둥만큼이나 두려워하게 된다.

さまざま分別して見れ共、とかく分散にせねばすまぬに極る時、源知恵を出し、(中略) 京都は其方手代共心を合、随分金銀を仕出し、江戸より都へ立帰り、借銀残らず皆済し、二度富貴の家と栄へ、島原よりふく風は、魚屋の南風をいやがる程におそれ、太鼓を見ては、神鳴よりはおちおそれける。(1권 1장, 텍스트 pp.21-22.)

위는 검약한 부자는 유곽에서 탕진한다. 그러나 절연 당했다는 소문으로써 채무를 늦게 갚고 재기하게 된다는 지혜로운 부자의 이야기이다. 위와 같이 유곽에서 탕진 후 재기하는 인물은 1권 2장에서도 묘사되는데, 여기서 상인은 지혜에 의해 얼마든지 돈을 벌 수 있다는 이야기가 강조된다.¹²⁾ 나아가 2권 3장에서는 「세상에서 우둔한 자와 돈의 이자만큼 무서운 것이 없다.¹³⁾」며 강조되는데, 이처럼 돈의 위력과 축재에 관한 반복되는 묘사를 보면 누구나 한번쯤 빠지는 유곽놀이와는 대조적으로 축재에 대해 작중 상인들은 과히 강박적이었음을 알 수 있다.

11) 앞의 책, 『浮世草子研究資料叢書』第五卷,p.502. 森山重雄「現実像の解体—浮世草子試論—」p.54. 「勢い、第四階級たる町人たちは、正面舞台において忍従し鬱積した所の生活意欲を、舞台裏において晴らさないわけにはゆかなかった。」

12) 텍스트 p.23. 「昔より今は商がない」と、独して氣をやむ親父あって、子共の行末の事迄、無用の思ひ置、是其身愚かにして商売の道疎く、身過の種を工夫して、金の花咲春を、しらぬからおこつての案じ過ごし也。(中略) 然れば商がないとはいはれぬいひ過し也。」

13) 텍스트 p.96. 「世の中に無分別者と、銀の利ほどこはきものなし。」

4. 조닌모노(町人物)의 인물 묘사

돈으로써 삶의 욕망을 표출할 수밖에 없는 상인 유형은 기세기의 첫 조닌모노인 『아킨도 군바이 우치와(商人軍配団)』(1712)에서도 묘사된다.¹⁴⁾ 『아킨도 군바이 우치와』에 대해서는 하세가와 씨의 연구 및 줄고에 자세하지만,¹⁵⁾ 본 연구는 그 소재 중에 하나가 바로 유곽과 탕진이라는 사실에 주목하며 살펴보고자 한다.

부모의 검약함에 어울릴 정도로, (중략) 꿈에도 주판을 잃지 않으니 가난의 신도 그의 셈이 엄격함을 두려워하여 다가가지 않는다. (중략) 부인 외에는 색이라고 하는 글자를 모르는 남자, 오늘 처음으로 여행복을 벗고 허리끈을 풀러 (유녀와) 자보며 보통여성과의 잠자리와는 전혀 다른 세상을 경험한다. 특별히 이 유녀는 잠자리를 잘 하는 사람으로서, (중략) 이때부터 매일같이 다니는데, (중략) 고급유녀의 훌륭한 행보를 보고 몸값을 물으니 30관목이라고 한다. 저 기량에 저 멋이 있는 정도라면 싼 정도라고 하는 것을, (중략) 자산을 가볍게 탕진하고 집까지 팔아 쫓겨나게 되어 오늘 하루 입에 풀칠하기도 어려워 몸을 사리지 않고 손발이 닳도록 일하게 하니,

親の吝きにつり取くらいにて、(中略) 夢にも十露盤をわすれねば、貧乏神も此算用のきびしきにおそれてちかづかず。(中略) 女房の外は色といふ字をしらぬ男、今ははじめの旅衣、帯ひもといてねて見しに、地女とは格別世界ことさら此女上手ものにて、(中略) これより毎日かよふほどに、(中略) 天職のゆたかなる道中を見て、値段をきけば三十目といへり。あの器量幅のある体では安いものじゃといふを、(中略) 財宝さらりと埒明て、家迄売て立のき、けふをくらしかねて骨をおしまず足手を百足ほどはたらかせて、¹⁶⁾

『아킨도 군바이 우치와』의 1권 2장에서는 위와 같이 꿈에서도 주판을 놓지

14) 『浮世草子の研究』 p.296. 「次には其磧はじめての町人物『商人軍配団』が出た。」

15) 『浮世草子の研究』 p.347. 「この構成は其磧自身既に処女作の『けいせい色三味線』で用いたものである。傾城買の心玉で首尾を整へ、女郎狂ひはその心玉に迷はされたものとする。これを貧富二玉とするところに『色三味線』とは異った対照的な人物・ケースの布置や対立・葛藤が描かれる事になる。」, 줄고(2011) 「에지마 기세키(江島其磧)의 축재(蓄財) 인식에 관한 소고(小考)-쇼토쿠기(正徳期) 작품을 중심으로」 『일본학보』 제88호, pp.81-92.

16) 八文字屋本研究会編(1993) 『八文字屋本全集 第3巻 商人軍配団』 卷1之1, 汲古書院, pp.260-263. 이하 텍스트로 삼는다.

않았던 매우 검약했던 사람도 유곽에 빠져 탕진하는 모습이 묘사되고 있다. 이렇듯 유곽은 축재와 배치되는 성격을 지닌 장소로서 상인이 특별히 경계해야 할 곳이지만, 역설적으로 유곽만큼 돈이 아깝지 않은 곳도 없다는 언설이 『아킨도 군바이 우치와』의 모두에 다음과 같이 전개된다.

인간의 성쇠는 꼬아놓은 밧줄과 같다. 실로 부자는 2대를 가는 법이 없다. 아버지가 사망하여 한참 성하던 꽃도 지고, (중략) 망할 때는 망하는 법이다. 범부의 지혜, 재능으로써도 어쩔 수 없다. 이 모든 것이 때가 와서 색에 빠졌기 때문이라며, 이 재미있는 색도를 방해받지 않을 것이다. (중략) 유녀에게 빠지면 예컨대 천량, 만량을 뿌린 후에도 (유녀가) 귀엽고 즐거운 법. 내가 납득하여 하는 일이므로 맨몸으로 들판에 쫓겨나서 잡자는 신세가 된다고 하더라도 남을 원망하지 않게 되는데, 이 또한 다유 덕분이다. 다유 덕분이기엔 먹지 않고 사는 것이야말로 바라던 바라며 걸식을 하면서도 즐거움이 깊다. 어차피 나의 대에 파산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사실을 처음부터 알았더라면 다른 일을 하지 말고 색도에만 빠져서 가산을 다 바치고 죽었을 것을,

人間の盛衰はあざなへる繩のごとし。誠に長者二代なし親父死なれて世盛の花もちり。
 (中略) つぶれる時にはつぶるる事、凡夫の智恵才覚にてゆかず。是皆時節到来必色狂ひのわざと、此おもしろき色道に疵をつけてもらふまじ。(中略) 女郎狂ひにはたとへ千両万両蒔すててからがかはゆさのまま、おもしろさのまま。我心から合点にてする事なれば、丸裸になって野にねるほどの身になりても、人を恨むることなく、かふなるも太夫ゆへじゃ、君ゆへなれば喰ずに居ても本望ぞと、乞食してもたのしみふかし。いづれ我代につぶれねばならぬといふ事あたまから知てあらば、外をやめて色事一道にて身代の回向をし果ば、(텍스트 1권 1장, pp.254-256.)

상인이 경계할 것은 바로 유곽놀이지만, 탕진할 바에야 유곽놀이로 탕진하는 것이 낫다고 하는데, 그 의식은 앞서 살펴본 『이로자미센』의 3권 4장, 5권 4장과 상통한다. 조금 더 『아킨도 군바이 우치와』를 살펴보면, 1권 1장의 부잣집 삼대 진베(仁兵衛)는 아래와 같이 가난의 신의 사자(貧乏神の小坊主)가 붙어서인지, 삼대 째 이어져온 부(富)를 유곽놀이 때문에 탕진하고 만다.

가난의 신의 사자가 이해하여 말하기를, "십여 년 전부터 이대 째 이어져온 무로마치의 견사 가게 부자가 있는데, 삼대 째까지 이어질 복은 없으니 나도

복의 신과 자리를 바꾸어 장자 진베를 이 시마바라에 유혹하였더니, (진베는) 하루도 자기 집에서 잠을 자지 않는다. 꿈에서 헤어날 줄을 모르고 십년 동안의 탕진에 집안 창고에 가득했던 돈 상자가 유녀에게 쓴 돈 때문에 텅텅 비었다.”

貧乏神の小坊主承りて、拙者も十ヶ年以前より室町の絹布屋、二代つづきし有徳人、三代め迄続べき福(さいわい)の果(か)なければ、福神と入替り、惣領仁兵衛を此嶋原へ誘ひ来りしより、一日も我宿に寝ず。夢覺て夢に又現のごとく、十歳あまりの大きさに、年々内蔵にうめし銀箱、明暮の付届にいつともなふ皆になし。(텍스트 1권 1장, p.257.)

이렇듯 조부모와 부모가 일구어 놓은 부를 유곽놀이로 탕진한 삼대의 이야기는 기세키의 첫 가타기모노 『세켄 무스코 가타기(世間息子気質, 이하 무스코 가타기)』(1715)의 서문과 첫 장의 모티브가 되어, 다음과 같이 전개되기도 한다.

요즘 아이들을 보고 있자니 8세에 곰방대를 물고 십 오세에 부모의 죽음을 담보로 두 배로 돈을 빌려 유녀를 낙적하는 심보, 이를 사람의 도리로 생각한다. 당연하기도 하다. 사람은 배우지 않고서는 알 수 없는 법이므로 도련님이라며 과잉보호를 받으며 망나니로 자라나서 말도 안 되게 오만해진다. 자신의 가업에 마음을 두는 것은 모자란 것이라고 업신여기고, 여러 예능과 색도에 빠져서 방만하게 굴며 부자의 풍속은 그와 같은 것이라고 착각한다. 자신의 과오를 뒤우치기는커녕 분수에 맞지 않는 놀이에 부모의 자산을 날리며 어제까지는 다이진이라고 불렸던 남자도 오늘은 다이코모치의 침술사가 되어 늙어서도 마음고생하며 사는 사람이 수도 없이 많다.

今時の子供を見るに八歳にて烟管(きせる)をくはへ、十有五にして死一倍をかって傾城を請出す魂胆、是人たるものの道とおもへり。むべなるかな、教ずして人生れながらに知ものにあらざれば若子さまともてはやされて我儘にそだち、むしやうに高ふとまって、をのが家業に心をよせるは至らぬかなといやしめ、諸芸色遊びにかかって放埒に身を持を、銀持の風俗はかくこそと思ひ込で、自非をあらたむる心はなくて、分際不相応の奢遊びに親の譲り銀を皆になし、きのふ迄は大臣と呼し男、けふは太鼓の鍼立坊となって老て辛勞する人あまたなり。17)

17) 中嶋隆訳注(1990) 『江戸の風俗小説 世間息子気質・世間娘容気』 社会思想社, p.258.

옛날에 누가 말했던가, "부모 고생하면 그 자식은 편하고, 손주는 걸식한다."
(중략) "연중 검소함으로 무장하고 돈을 더 벌어서 남기고 싶다."라고 자식을
위해서라면 검은 머리가 파뿌리가 될 때까지도 일하는,
むかし誰かいひけん、「親苦勞する其子樂する孫乞食する」と。(中略)「年中始末
に身をかため、金をのばしてとらしたや。」と子夢の闇に黒き髪白くなるまで其身をつかひ、
(1권 1장, pp.260-261.)

우선 서문은 자식 세대가 사치하고 가업에 불성실함을 경계하기 위해 취미
생활과 유곽놀이로 탕진한 나쁜 예를 들어보여 준다고 하는데, 이어서 첫 장의
모두(冒頭)는 바로 위와 같이 시작된다. 조부모, 부모 대에는 검은 머리가 파뿌
리가 되도록 일을 하여 축재를 하지만, 삼대 째가 되면 그 감사함과 중요함을
잊고 취미생활과 유곽놀이에 빠져 쉽게 탕진한다는 것이다.

무릇 사람이 일생 중에 한 번은 유곽놀이에 빠지지 않는 사람은 한 명도 없
다. (중략) 반드시 좋은 방향으로 가지 않고 대부분은 가난의 신에 이끌려 좀
처럼 이어지지 못하는 자산, 지금부터 유곽에 다니지 않는다고 해서 다시 돌
아올 돈도 아니다. 조금 알게 된 이 유곽놀이, 언젠가는 할복할 각오로서 (유
곽에) 계속 다닌다면 죽지는 않을 것이다.

されば人間の一生のうちに、一たびは色ぐるひに取りださぬといふ事ひとりもなし。 (中略)か
ならずさふ善方へはあゆまずして、大かたが貧乏神に腰をおされて、とともつづかぬ身代、
今から通ひ止んだとて、つかひすてた金銀がもどる物ではなし。わづかにしれたる此世界つ
まる所は腹切仕舞と覚悟きはめて、かよひかよひて行あたった所ではかならず死なぬものぞか
し。
(텍스트 1권 3장, pp.270-271.)

『이로자미센』, 『아킨도 군바이 우치와』와 같이, 위의 밑줄 친 부분에서
도 탕진할 것을 알면서도 누구나 평생 한 번은 유곽놀이에 빠져 정신을 못 차
리는 경우가 있다며, 상인의 유곽놀이에 대해 자연스러운 일로 치부한다. 나가
가 3권 3장의 아들은 끝내 아들을 사랑하는 아버지를 속여 유녀를 낙적하고,
그 아들에게 속은 아버지의 모습 또한 우스꽝스럽게 묘사된다.¹⁸⁾ 흥미로운 점
은 『무스코 가타기』에는 유곽놀이를 통해 탕진하는 삼대 째 상인이 묘사되

18) 텍스트 p.273. 「『世にないならひではなし。ずいぶんねぎってうけてやれ。』と、千両の小判耳を
そろへて、きいたりきいたりむす子が心中狂言。」

기 보다는 축재를 위해 힘쓰던 아버지와 정 반대의 성향을 지니며 속임수, 사기 등에 능한 아들의 유형, 혹은 과한 축재 의식 때문에 생겨난 새로운 상인 유형이 묘사되었다는 사실이다. 『무스코 가타기』에는 『이로자미센』과 『아킨도 군바이 우치와』에서 묘사된 축재에 배치되는 유곽 묘사보다는, 유곽놀이에서의 탕진마저도 극복할 수 있는 삼대 째 상인의 거부(巨富)가 은연중에 묘사되고 있는 것이다. 이렇듯 1715년 현재 기세키에게 상인의 축재는 유곽놀이를 해서 탕진할 만큼의 소부(小富)가 아니다. 『이로자미센』과 『아킨도 군바이 우치와』를 통해 걱정했던 유곽놀이를 통한 탕진 가능성을 극복한 삼대 째 이어져 온, 혹은 축적되어 온 자본은 『아킨도 군바이 우치와』의 1권 3장에서 묘사되는 다음과 같은 가치를 지닌다.

조닌은 돈이 곧 씨성이기 때문에 천민출신이 아니라면 이 세상에 전혀 창피해할 일이 아니다. 지금 세 도시의 조닌은 요즘 부자가 된 사람이 많다. 이는 상인으로서 체면이 서는 영광스러운 일이니 감동해야 하는데, (이들) 업신여긴다면 도리를 모르는 바보라고 하겠다.

町人は金銀が氏種姓なれば、穢多梵坊の筋ならねば、世にはづる事ひとつもなし。今三ヶ津の町人、近年の出来分限おほし。是商人の面目ゆゆしきほまれなれば、感ずべき事なるを、いやしむる道理をしらぬ馬鹿とするべし。(텍스트 1권 3장, p.267.)

밑줄 친 부분에서 언급하듯, 이제 조닌의 성씨는 금은, 즉 축재다. 조닌에게 축재만큼 중요한 것이 없다. 역설적으로 사이카쿠의 시대를 지나 쇼토쿠(正徳:1711-1715) 시대에 들어선 일본의 경제상황, 특별히 상인의 경제적 환경은 다가올 교호의 개혁(享保の改革)에서 강요당할 건축 재정 직전의 호경기, 인플레이션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돈이 풀릴 대로 풀린 사회적 환경 하에, 삼대 째 상인인 망나니 아들은 유곽에서 겁 없이 놀아도 탕진하기는커녕, 아버지의 능력으로써 어떻게 해서든 생활해 가는 것이다. 그와 같은 변모된 경제 상황이 묘사된 것이 바로 『무스코 가타기』였고, 『이로자미센』에서 보여준 축재에 배치되는 유곽의 성격은 희박해져 간다. 나아가 거부의 성공적 축재를 묘사하기 위해 앞으로 기세키는 『아킨도 군바이 우치와』와 그 후속작의 성격을 띠는 『도세이 아키나이 군단(渡世商軍談)』(1713), 『아킨도 가쇼쿠쿤(商人家職訓)』(1722), 『세켄 테다이 가타기(世間手代気質)』(1730)를 집필해 가는 것이다.¹⁹⁾

5. 나가기

18세기 초 일본은 격변하는 동아시아 국제 정세 속에서 장군국왕 칭호를 사용하며 독자적인 일본 중심적 화이사상을 구축해 나갔다.²⁰⁾ 그와 같은 흐름에는 국제적 국가 위상이라는 문제와 더불어 경제적 패권 다툼이라는 또 하나의 문제가 숨겨져 있었다. 같은 맥락에서 서민의 생활 차원에서도 경제적 문제는 주요한 문제로 부상되었고, 특별히 상인 계층에게 경제적 성패의 문제는 곧 사회적 위상의 문제였음을 쉽게 가늠할 수 있다. 그러므로 『이로자미센』에 축재에 집착하는 상인의 모습이 묘사되는 것은 어쩌면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하겠다.

본 연구는 유곽의 세계를 묘사하였다는 『이로자미센』에 대한 기존의 평가에 더해, 축재에 배치되는 유곽의 성격이 묘사되면서 상업으로서의 유곽이 강조됨을 알 수 있었다. 나아가 유곽 때문에 탕진한 상인이라 할지라도 축재를 통해 재기해야함을 기세키는 강박적으로 묘사하고 있기도 했다. 이로써 작가 기세키는 당대 상인이 지닌 모순과 갈등을 『이로자미센』에서 포착하고, 나아가 조닌모노를 통해 축재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는 상인의 운명을 묘사해 간 것으로 보인다.

돈과 유곽의 불가분의 관계, 배치되는 성격은 결국 일본 근세기를 통틀어 상인이 안고 살아갔던 사회적 문제였음은 주지의 사실이나, 『이로자미센』에 보이는 돈과 유곽의 모순적 관계는 훗날 조닌모노에서 재차 묘사되고 변용되어 간다는 점은 본 연구를 통해 새롭게 자각할 수 있는 또 하나의 사실이다. 『이로자미센』에서 묘사된 돈과 유곽의 밀접하고도 배치되는 성격 때문에 갈등을 겪는 골계적이고도 유형적인 인물들은 조닌모노에서 축재를 위해 발버둥치는, 혹은 축재에서 멀어져 패망하는 상인들과 크게 다르지 않기 때문이다.

기세키의 첫 우키요조시 『이로자미센』은 기세키가 평판기를 집필했던 경험의 연장선상에서 평가되어 왔다. 그러나 본 연구를 통해, 훗날 작가 기세키

19) 졸고(2015) 「에도(江戸)시대 민중의 상업 윤리 - 우키요조시(浮世草子) 『세켄 테다이 가타기(世間手代気質)』를 중심으로」 『비교문화연구』 39집, 경희대학교 비교문화연구소, pp.33-59.

20) 장혜진(2015) 「一八世紀初期における華夷秩序と日本外交の変容 -通商と将軍国王化の変容を中心に-」 『일본문화학보』 제65집, 한국일본문화학회, p.289.

가 조닌모노 속에서 묘사하게 되는 돈과 유곽 사이에서 갈등하는 상인 유형이 이미 그의 첫 우키요조시에서 원형을 보여주었다고 하겠다. 특별히 유곽에서 당진했다가도 다시 재기하고자 하는 상인 유형이 거듭 묘사되면서, 상인계층이 허구의 소설 속에서도 다시 그들의 본분을 의식했어야만 하는 강박적 현실이 반영되었다고 하겠다.

마지막으로 기세키작 가타기모노에서는 충분히 부유하기 때문에 축재와 가산 유지에 신경을 쓰지 않는 망나니 아들이 묘사되었다. 그와 같은 인물이 다른 샤미센모노에서도 등장하는지, 혹은 돈에 사로잡히고 돈 때문에 갈등하는 전형적인 상인 유형만이 확인되는지, 이후의 과제로 남기고자 한다.

【참고문헌】

- 고영란(2010) 「『곤탄 이로아소비 후토코로 오토코(魂胆色遊懷男)』에 관한 일고찰」 『일본사상』 19호, 일본사상사학회, p.200.
- _____ (2011) 「에지마 기세키(江島其磧)의 축재(蓄財) 인식에 관한 소고(小考)-쇼토쿠기(正徳期) 작품을 중심으로」 『일본학보』 제88호, 한국일본학회, pp.81-92.
- _____ (2015) 「에도(江戸)시대 민중의 상업 윤리 - 우키요조시(浮世草子) 『세켄 데다이 가타기(世間手代気質)』를 중심으로」 『비교문화연구』 39집, 경희대학교 비교문화연구소, pp.33-59.
- 倉員正江・佐伯孝弘編・解説(2010)堀江善郎 「八文字屋本に於ける三味線物について」 『浮世草子研究資料叢書 第五巻』 クレス出版, p.244.
森山重雄 「現実像の解体—浮世草子試論—」 p.502.
花谷登美乃 「西鶴と其磧—西鶴好色物と其磧三味線物を中心に—」 p.548.
- 中嶋隆訳注(1990) 『江戸の風俗小説 世間子息気質・世間娘容気』 社会思想社, p.258, pp.260-261, pp.270-271.
- 長谷川強校注(1989) 『新日本古典文学大系 けいせい色三味線、けいせい伝授紙子、世間娘気質』 岩波書店, pp.21-23, p.37, p.60, pp.87-88, pp.95-96, p.148, p.154, p.161, pp.163-164, p.239, p.245.
- 長谷川強(1991) 『浮世草子の研究』 桜楓社, pp.83-85, pp.113-115, p.296, p.347.
- 八文字屋本研究会編(1993) 『八文字屋本全集 第3巻 商人軍配団』 汲古書院, pp.254-257, pp.260-263, p.267.

논문 투고 일자 : 2016. 06. 29. 논문 심사 일자 : 2016. 07. 25. 게재 확정 일자 : 2016. 07. 27.
--

<要旨>

銀と遊廓文化
- 『けいせい色三味線』の場合-

高永爛

本稿は江島其磧(1666-1735)作『けいせい色三味線』(1701)に描かれた銀と遊廓の描写に焦点を当てたものである。これに焦点を当てて分析したときはじめて江島其磧作町人物の世界が理解できるからである。分析の結果、好色物の延長線で評価されてきた『けいせい色三味線』には商業としての遊廓や遊廓で財を失う町人が描かれていた。もちろん、商人達は己れの業である蓄財と遊廓文化は相容れない事を十分知りつつも、遊廓にて己れの欲望を表出するしかないのであった。ここに町人階級の悲哀が見え隠れする。このため、商人は遊廓で財産を失いつつも欲望を満しては満足し、一方でまた蓄財に駆り立てられたりもする。このような商人のジレンマを上手く描き出しているのが『けいせい色三味線』の一特色でもある。以上により、『けいせい色三味線』は好色の世界を描きつつも、商人の蓄財と欲望の間で揺れ動く心理的深淵を見せてくれる作品として、江島其磧の町人物の先駆けの作品としても、再度評価し得るのである。

Money and Culture of red-light districts
-Focusing on Keisei Irozyamisen(けいせい色三味線)-

Koh, Young-Ran

This study focuses on Keisei Irozyamisen(けいせい色三味線) which was written by Ezima Kiseki(1666-1735). The work described merchant's money and the culture of red-light districts, so we can analyze the merchants lifestyles as described in the study.

First of all, Keisei Irozyamisen described the red-light districts as spaces of business, so the merchant lost his money to pay for the prostitutes and the prostitutes wanted to earn money. Certainly, the merchants knew the fact if they went to the red-light districts, they would lose their money. But they were eager for the love affairs with the prostitutes, nonetheless they ran through their fortune. This fact reflects the merchants living in those days dilemma between earning money and desire. And the dilemma of merchants was further discussed in Kiseki's Choninmono.

So we can understand that Keisei Irozyamisen described not only love affairs but also the merchant's dilemma. Then we can understand Kiseki's recognition about the merchant's life began with the Keisei Irozyamisen.